

# 주식 시장, 바닥을 벗어날 것인가

임상용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증권·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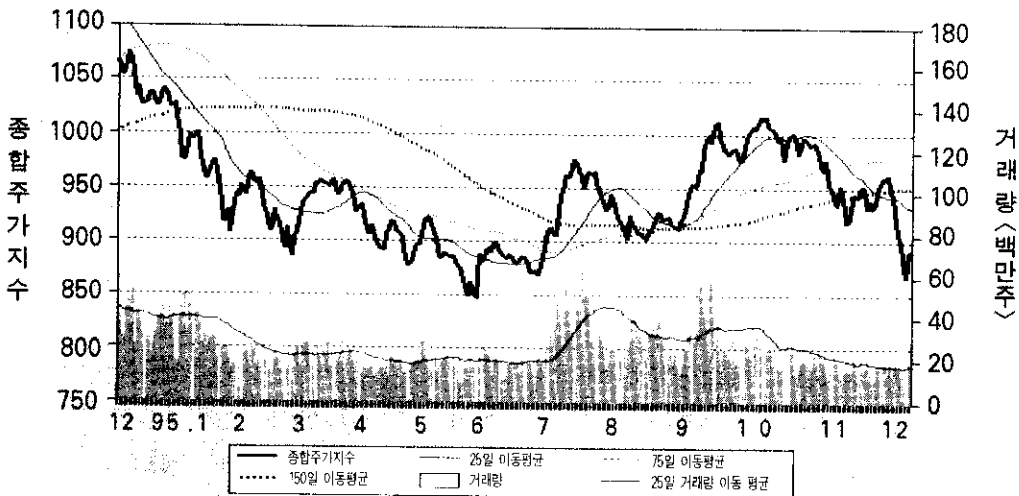
## 장외 요인에 따른 주식 시장 폭락

**최**근의 증시는 고객 예약금과 종합주가지수, 거래량 등 주식 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올해의 최저 수준에 근접하는 등 바닥권에서 허덕이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하락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 주가 폭락은 장외 악재에 대한 지나친 과민 반응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 5·18특별법 제정, 정치권 사정 등에 따른 정국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고, 또한 북한의 군사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발표로 외국인파 일반 투자자의 매도가 확대되어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는 1995년 12월 15일 900선이 무너지고, 18일에는 867.18 포인트를 기록하여 1995년 최저치인 847.0 포인트에 거의 근접하였다. 그러나 19일에는



단기간의 낙폭 과대와 증시 안정 대책에 대한 기대로 23.61 포인트가 급등한 890.79 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이번 단기 급락은 7 일간 연속적으로 95.69 포인트, 9.93%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과거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2 주간에 걸쳐 14.9%에 하락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거래 부진 현상도 심각하여 일평균 거래량은 2,000만 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 예탁금도 12월 18일 현재 2조 788억 원으로 12월 들어 2,000억 원 이상 감소하였다.

### 증시 주변 환경의 호전

증시의 수급 측면에서 최근의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우위와 관망세, 연중 최저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의 고갈 상태 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는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세로 반등한 19일부터 고객 예탁금이 하루 200억 원 가량 증가하여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11.38%까지 떨어졌던 회사채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서 20일에는 11.6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채권 수익률의 상승세는 은행권이 지준 마감 등으로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證券 기금의 채권 매도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주가 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향후 주식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현재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므로 조만간 반등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술적 지표로 볼 때,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치에 접근하였고, 지난 5 개월간 상승세를 보이던 75일 이동 평균선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어 반발 매수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게 되면, 금리의 추가 하락을 노리고 채권 투자를 해온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 투신사 등이 낙폭이 큰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각으로 정국 안정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팀이 기업이나 증시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경우,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동안의 주가 폭락이 장외에 원인이 있는 만큼,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비자금 파분의 조기 수습과 정국 안정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다. **HP1**